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OECD 농업위원회, 세계농업포럼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2. 출장목적: “OECD 농업분야 논의 대응”에 대한 수시 과제(3월-12월)의 연구업무의 일환으로 제 151차 농업위원회, 2008 세계농업 포럼에 참석
3. 출장지역: 프랑스 파리
4. 출장기간: 2008. 11. 17(월) ~ 11. 22(토)(5박 7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국제농업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윤형현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11. 17(월)	10:30 인천 출발 ~ 14:30 파리 도착	항공편 이동
11. 18(화) - 19(수)	제 150차 농업위원회	회의 참가
11. 20(목) - 21(금)	2008 세계농업포럼	포럼 참가
11. 22(토)	20:00 파리 출발 ~ 11. 23(일) 인천도착	항공편 이동

7. 주요 내용

- 제 150차 농업위원회: 농업위원회 하부구조 평가, 2010년 각료이사회 준비, 기후변화와 농업에 관한 정책포럼 등 13개 주제를 논의함.
- 2008 세계농업포럼: 개도국 농업정책을 주제로 OECD 사무국의 개도국 농정에 대한 소개 및 약식평가, 관련 국가의 발언 및 질의로 구성됨.

II. 주요 의제 요약 및 논의결과

1. 150차 농업위원회: 11월 18일(화)~19일(수)

□ 관찰 및 평가

- 농업위원회 심층평가 및 후속권고에서 농업위원회는 대체로 ‘중간 (medium)’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 공동연구작업(CRP)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음.
 - OECD 주재 농무관에 의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보유한 대규모 OECD 위원회 중에서 농업위원회에 대한 내외의 비판이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함.
 - 농업위원회의 위상 변화와 농업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통해 농업위원회에 혁신을 제안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임.

-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입장과 정책을 소개한 정책포럼의 경우, 여러 나라들이 미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발언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기 위해 노력했음.
 - OECD가 정책권고를 주로 하는 기관임을 상기할 때, 공세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동의하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 사무국에 전달하거나, 회의장에 배포하면 포럼을 자국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처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음.

표1. 주요 일정 및 의제

11월 18일(화)	
01. 의제 채택	
02. 농업위원회 심층평가 및 후속권고	[토의]
03. 농업위원회 하부구조 평가	[승인]
04. Part II 프로그램 보강(규범 및 사업계획, 생물 자원 경영)	[정보제공]
05. 각료이사회 논의사항 준비	[토의]
06. “세계화 시대에 농업과 식품분야의 미래” 심포지움 준비	[정보제공]
07. 2009-2010년 회의 계획	[토의]
11월 19일(수)	
08. 정책 포럼 : 기후변화와 농업	[공개토의]
09. 농업환경위원회 의장과 세계농업포럼 의장 보고	
10. 사업 진도 보고 - 아프리카 지역 농업정책지수 및 데이터베이스(ADPI) 구축 [정보제공] -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의 경제적 중요성	
11. OECD 비회원국 참여 증진 (Accession and Enhanced Engagement) 사업 진도 보고	[정보제공]
12. 위원회 부서 및 하위기관 선거	[결정]
13. 151차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요약본 채택	[결정]

가. 농업위원회 심층평가를 위한 후속권고

□ 주요 내용

- OECD 이사회가 농업위원회의 2007-2008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2008년 5월경까지 심층 평가를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이에 농업위원회는 그에 따른 후속계획(follow-up plan)을 수립함. 프로그램들(스킴과 코드, 협력연구) 은 농업위원회와 동시에 검토함.
- 권고1: 정책분석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다양한 농업정책 맥락 및 새로운 정책이슈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함
 - 2009-2010 예산사업계획(PWB)을 다양한 정책적 맥락과 다양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함.
 - 2010년 봄 농업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고문단을 구성하여 각료회의 의제에 각국의 입장을 반영토록 함.
- 권고2: 농업위 의장단은 위원회 내 및 하위 작업단, 사무국과의 조정역할을 강화해야 함.
 - 의장단은 회의 전 정규적 회합을 지속하고, 작업단 등 부속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각 활동을 정규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작업반 의제 중 중요한 것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함.
- 권고3: 농업위원회는 무역, 환경 분야와의 협동작업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과 농촌개발 및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역할강화를 재검토해야 함.
 - 무역 및 환경과의 작업반회의에 무역·환경 분야 대표단 참석을 독려하고,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의장단과 양 위원회 간 관련 업무에 대해 논의할 것임.
 - 다른 정책 분야와의 협업을 위해 ‘개혁의 정치경제’, ‘기후변화’, ‘물’ 등의 분야에서 2009-2010 예산사업계획(PWB)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권고4: 농업위원회는 글로벌 이벤트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해야 함.
 - 글로벌포럼 의장 및 사무국은 글로벌 이벤트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결과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협력연구(Cooperative Research Program: CRP)와 농업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권고: 농업위원회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하고 예산 지원 주제는 통상적인 정책대상이 아니라 OECD의 정책 위원회(농업위원회 및 작업반)가 언급한 것을 해야 함.
 - 2006년부터 협력연구 의장이 하반기에 개최되는 농업위원회에 참석하여 협력 연구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농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2009년 3월 심포지엄 “글로벌화 세계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는 농업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것임. 2009-2010 협력연구 사업계획은 농업위원회의 2009-2010 예산사업계획을 토대로 결정될 것임.

□ 논의 내용

- 대표단들은 후속조치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권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강조한 권고 2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의사조정 및 이슈 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권고3에 대해서는 TDPC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협력방안부터 모색할 것을 주문했음. 일부 대표단은 바이오기술 작업반도 수평적 협력 파트너에 포함되길 희망하였음.
- 사무국은 내용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보다 상세히 할 것이라고 밝힘. 정책분석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기등의 세계적 이슈에 대한 농업의 입장을 조명하고 본국의 정책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 또한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포럼 운영을 적극 활용할 것임. 정책제공자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는 논의된 모든 내용을 요약할 것으로써 운영모드 몇 개를 정리해서 액션플랜으로 이어지게 할 것임.

나. 농업위원회 하부구조 평가

- 농업위원회는 농정작업반(APM) 산하 2개의 품목그룹(육류낙농그룹 & 곡물사료설탕그룹)을 하나의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

으로 통합함.

-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의 향후 5개년(2009-2013) 임무안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의 현황 및 OECD-FAO 중기농업전망을 검토함.
 - 농산물 관련 추세와 정책적 이슈를 알아보고 시장영향을 평가함.
 - 농업위원회가 요청하는 연구를 수행함.
 - 위의 임무를 농정시장작업반에 보고함.

다. Part II사업 보강

□ 주요 내용

- Part II사업은 예산으로 수행되는 Part I 사업과는 달리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을 말함. 현재 연구협력프로그램(Cooperative Research Program: CRP)은 3개 분야(자연자원에 대한 도전/ 지속가능성/ 식품체인) 대한 국제회의 및 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2008년에는 8개 국제회의 및 워크숍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9개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음. 2008년에는 39개 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75개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음.
- ‘농업표준과 스킴’ 및 ‘생물자원관리 협력연구’에 대한 이사회의 평가보고서가 2008년 9월에 발간되었고 2009. 1월 평가위원회에 심층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는 일부 진행 중임.
- “지속가능한 농업유지를 위한 생물자원관리 협력연구 프로그램(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의 2010-2014년간 다음의 임무안을 승인함.
 - 농업, 수산업, 농식품 분야 연구의 국제적/ 학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촉진함.
 - 농업과 수산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촉진함.
 - 농업, 수산업, 농식품 분야의 장기적 연구를 통해 농업위원회 및 수산위원회 활동에 기여함.

- 2010-2014 임무안에 포함될 연구주제
 - 지속적 농업생산체제 유지를 위한 자연자원의 질 유지하기
 - 식품, 섬유, 바이오에너지 기업체(전통적/현대적) 개발하기
 - 투입부터 최종소비까지 글로벌 식품 및 농업 시스템 유지를 위한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 논의 내용

- 일부 대표단은 CRP 활동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은 지적함. 또한 CRP 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기준이 애매하고 그에 따른 권고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비판함.
- 반면 일본을 비롯한 일부대표단들은 CRP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임을 강조하고 CRP의 연구지원제도(fellow-ship)로 많은 개도국들이 혜택을 보고 있음을 지적함.
- 대표단들은 CRP의 학문적 성격과 농업위원회의 정치적(정책적) 성격을 언급하며 이러한 관계가 상호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라. 2010년 농업각료회의 준비사항

□ 주요 내용

- 1998년 이후 12년만인 2010년 봄에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사무국은 각료회의 고문단의 3차례 회합결과를 토대로 논의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www.oecd.org/agriculture/min2010 에 게시되었음이 공지함.

□ 논의 내용

- 각료회의 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 중 1.5일등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각료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2010년 2월 26일(금) 하루 동

안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표단들은 '식품과 농업: 글로벌 도전과 기회', '식품과 농업의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정책', '지속적인 미래를 위한 식품과 농업정책'에 대해 선호를 나타냈음. 사무국은 고문단회의 등을 거쳐 압축된 주제 후보 등을 고려하여 주제선정을 할 것임을 설명하였음
- 참가범위에 관해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시민사회 참석을 희망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이 반대함. 시민사회는 심포지엄과 같은 부대행사에 참석토록하고 각료회의에 국제기구 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음.

마. “심포지엄: 농업과 식품의 미래” 준비사항

□ 주요 내용

- 2009-2010 예산사업계획(PWB) 중 “세계화가 식품체제와 공공정책에 갖는 함의”사업의 일환으로 OECD 내외 기관 및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이 포괄적으로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2009년 3월 30-31일 개최하기로 함.
- 세계화 진전에서 향후 10년간 농업과 식품분야가 직면하게 될 도전과 기회를 환경/사회/경제/정치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개최됨. 심포지엄 결과는 2010년 2월 농업각료회의의 논의 토대가 될 것임.
- 기조연설 1: 농식품의 미래를 형성하는 글로벌 경제
 - 글로벌 사회에서 농식품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노동력, 토지 등 경제적 요소 관련 이슈를 파악
- 기조연설 2: 자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권리주장 경쟁(competing claims)
 - 용수, 경작지, 비옥화를 위한 미네랄 등 한정된 자연자원을 두고 5f(food, feed, fiber, fuel, forest: 식품, 사료, 섬유, 연료, 산림)와 비농업 분야가 경쟁하고 있는 양상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간 자원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 적응과 전체 식품업계의 영향 감소에서 자원경쟁이 발생함.

- 4개 분야 패널
 - 기술과 혁신: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 모색
 - 권리주장 경쟁(희소성):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희소자원(물, 대지, 에너지, 노동력 등)을 파악
 - 농업과 비농업분야의 관계: 비농업 경제 분야(요소/에너지/자본 시장 등)의 변화를 파악
 - 소비자 기대: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탐색

- 전체패널토의: 무엇이 임박하였는가?
 - 기조연설자 및 4개 패널의장 등이 모여 각 논의에서 도출한 바를 정리함
 - 정책권고가 아니라, 정책입안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체연설: 농식품분야의 또 다른 미래
 - 심포지엄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결론을 끌어냄.

□ 논의 내용

- 대표단들은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 것을 요구하고 예산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일부대표단은 심포지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을 욕구함. 또한 패널 4개 분야와 기조연설과의 일관성이 낮은 것이 지적되었음.
- 최근 농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수(water) 등의 새로운 분야가 논의되길 희망함. 또한 서면의견 제출시한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예산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음.
- 사무국은 이 심포지엄에 비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고 11월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예산은 협력연구프로그램(CRP)에서 지원받을 예정임을 언급하였음.

- FAO는 관련 행사로 2009. 6. FAO가 주관하는 “2050년 세계 식량 수급 (feeding world) 관련 고위급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렸음.

바. 농업위원회의 2009-10 회의일정

- 사무국은 2009-10년 농업위원회 회의일정을 소개함.

표2. OECD 농업위원회 2009년 회의일정

일 시	회의
2월 23-24일	제48차 농정시장작업반
2월 25일	합동세미나: 농정시장작업반 & 농가단위분석망
2월 26일	제3차 농가단위분석망
3월 30-31일	농업위원회 심포지엄: 농업의 미래
4월 1-3일	제152차 농업위원회
4월 6-7일	제9차 품목작업그룹회의: 곡물, 사료, 설탕, 육류, 낙농제품
5월 25-27일	제49차 농정시장작업반
5월 28-29일	제61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6월 22-23일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
7월 6-8일	제28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10월 26-27일	제20차 농정시장작업반
10월 29-30일	제62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11월 2-3일	워크숍: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책의 경제적/무역적 시사점
11월	워크숍: 농업환경지표의 활용과 교환
12월 2-4일	제153차 농업위원회
12월 7-9일	제29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12월 10일	워크숍: 효과적인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집행

사. 정책 포럼: 기후변화와 농업의 연계

주요 내용

1) 배경

-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기후변화가 가져온 충격과 초기 신호로 보아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대한 충격이 있을 것임을 지적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지구 온난화와 기상변화가 전세계적으로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함.
-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변화 이외에도 생산 불안정성과 사회적 위험, 무역 등의 연계에서 발생할 충격은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음. 미래에 일어날 충격의 비용을 예측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임.

2) 농업과 온실가스 배출

- '199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농업에 있어 환경적 성취도(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in OECD Countries since 1990'(OECD, 2008)에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고하고 있음. 농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평균 10-12%를 차지함. 이중 75%가 EU-15개국과 미국의 배출량임.
- 농업은 온실가스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유기 토양, 가축사육에서 나온 유기 퇴비 활용, 목초지 개선, 바이오 에너지 작물 생산 등이 그 예임. 복잡한 영농 체계로 온전한 전과정평가는 이루어 질 수 없지만, 농업 경영행태가 생태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임.

3) 2030년까지의 전망

- OECD 환경전망 : 2030년까지(OECD Environment Outlook to 2030)(OECD,2008)에서 2030년에는 경제성장과 인구 성장으로 현재 보다 50% 많은 농작물 생산이 요구된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면 환경에 대한 부하는 매우 커질 것임.

표3. 표 8-3.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영향

세부 분야	지역	결과
식량 작물	온대지역	- 모든 작물에 저온한계가 완화됨 - 옥수수과 밀의 단수가 10-15% 증가 - 벼 단수는 변화 없음
목초지 및 가축		- 목초지의 저온한계가 완화됨 - 열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발생 빈도가 높아짐.
식량 작물	열대	- 밀과 옥수수 단수는 기준선 밑으로 감소 - 쌀은 변화 없음 - 옥수수, 밀, 쌀의 단수 적응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됨
목초지 및 가축	반건조 지역	- 순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음 - 열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발생 빈도가 높아짐.

자료: IPCC 2007, WG I I.

4) 정책

- OECD 개발협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지원 아래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연구를 주요 개도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정책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혁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제시함.
 - 국가간 공통의 이해기반을 위해 포럼을 개최함.
 - 각료들에게 제공할 기후 정책의 원칙을 제공함.
 - 건전한 경제적 기반아래 2012년 이후 국제적 기후관련 협력 틀을 구성함.
- 경감(mitigation) 전략
 - 정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
 -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과 경쟁력,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한 정책 혼합(policy mix)
 - 2012년 이후 정책선택범위에서 국가간 비용 및 비용 분배를 검증함.
 - 합동작업 : 경제, 금융, 환경 각료간 합동작업

- 적응(adaption) 전략
 - 정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이로 인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반응하는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적응 체계
 - 개발에 따른 기후변화에 통합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침이 필요함.
 - 적응의 경제학을 통해 비용, 편익, 분배 효과를 검증해야 함.
 - 농업과 적응(2009-10)과 같은 부분별 적응이 시도되고 있음.

5) 결론

- 무역, 세금, 잘못된 보조금의 철폐 등 가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함. 이는 규제 및 표준 제시, 연구개발, 정보 확대에 이루어질 수 있음. 연구 개발 정책은 가격을 보상함: 가격은 혁신의 인센티브로 작용함.
- 공동정책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행동비용을 높이고, 오염감소 잠재력을 축소시킴. 많은 국가와 분야가 참가할 때 탄소배출에 따른 경쟁력 변화는 사라질 수 있음. 이 때 개도국 참가를 독려할 인센티브가 필요함.
- 저탄소 경제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 논의 내용

- 뉴질랜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방출량의 49% 차지함. 분야별 할당정책, 불복종에 대한 강한 벌칙, 연구혁신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지원, 산림화, ETS 2013년 진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진행 중임을 소개함.
 - 감축/적응/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환관리 및 손실보상 등을 목적으로 구체적 방법을 모색 중임.
 -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세금 부과로 낙농/양/소 농가의 순수입 감축 예상, 생산 감축으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산업과학정책의 연계 등
- 호주는 강우량 및 유거수(runoff) 감소, 관개보유량 감소, 온도상승, 수분증발로 기후 변화가 심하여 예측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설명함.
 - 농업생산 측면에서는 소, 낙농, 양 생산 감축량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배출권 거래제, “탄소감축계획”의 2010년 도입, 감축/적응/연구개발/신속한 의

사결정 및 의사소통 관련 정책 등을 추진 중임.

- 벨기에는 관련기관간 협력협정 체결, 국립기후위원회설립, 관련예산 증가, 기후변화적응연구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정보제공 및 경고정책 등을 지방 정부 및 연방차원에서 추진 중임을 소개함.
- 슬로바키아는 재생자원, 물관리,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책을 현재 추진 중임. 이 정책들은 EU의 공동농업정책(상호준수 및 health check)과 연계되어 있음. 농촌 개발, 새로운 품종개발 및 가축생산 기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개함.
-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bill), 5개년 계획 및 예산, 독립기관인 기후 변화위원회 설치, 감축정책(온실가스감축, 작물생산에너지감축, 바이오가스 생산 등), 적응정책(관개,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소개함.
- 노르웨이는 현재 농업생산방식으로 어떻게 2050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함.
- 미국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주경작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동절기 가축 조사료 비축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함. 농업법에 의한 보존프로그램 및 2003-2006 에너지 효율성개선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임을 설명함.
- 그리스- 기후변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균형 접근에 실패하였음을 지적하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함.
- 덴마크는 농업녹색성장(green growth of agriculture)을 소개하고,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함.
- 한국은 기온 상승과 쌀 생산량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히고 현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08-'12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소개하였음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관심에 사의를 표명하며, 농업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 및 정책의 역할 등에 기후변화 관련 작업의 초점을 둘 것이며, 복잡하고 불확실성

이 높아 관련 연구를 폭넓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 사업진도보고

- 2009년 농업위원회 회의일정을 소개하고, 농업환경합동작업반 및 농업글로벌포럼 의장은 2008년 활동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함
-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은 “199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성과 보고서“환경상호준수(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를 발간하고, SAPIM에 일본사례가 포함되었고, 2009-2010 PWB에 “농업과 기후변화”, “농업환경 이슈에 관한 혁신적 접근들(경매, 관민협정, 교역승인 등)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됨을 보고함.
- ‘중국농촌개발정책에 대한 검토’ 및 지역개발위원회 주최로 12월 3일 개최된 글로벌포럼에 대한 간략한 구두보고가 있었음
- 사무국은 빌게이트재단 기금으로 수행되는 “아프리카 농정 데이터 및 지표(APDI: Agr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Indicators)”를 위한 시작 보고서(scoping paper)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을 구두로 보고하였음. APDI는 아프리카 국가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화를 촉진하고자 OECD 및 FAO, 아프리카 국가의 협조로 개발 중에 있는 지표임.
- 사무국은 네덜란드 예산지원으로 수행되는 “지속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보고서에 관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조만간 농업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 이 연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하여 농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경제개발 단계가 상이한 4개 개도국(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에티오피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 Stephan Tangermann는 6년간 농업무역국장으로서 역임하고 12월에 퇴직하는 것을 알림.
- OECD 회원국 확대사업(Accession and Engagement)에 대한 현황 보고
 - 칠레, 러시아, 이스라엘의 농업환경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2009.7월 농업환경합

동작업반에서 토론될 예정

- 개도국 5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4개국의 농정점검이 격년으로 진행되었는데, 5개국 모두에 대한 농정 점검은 2010-2011년 개도국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2008 세계농업포럼(Global Forum on Agriculture):

개발도상국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ies in Emerging Economies)

□ 관찰 및 평가

- 세션 1의 영세농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논의는 타겟팅(targeting)과 농가에 대한 사회보장대책의 연계였음.
 - 한국사례발표에서 김한호 교수는 포지셔닝을 통한 타겟팅 전략을 소개해 많은 호평을 받았음. 이는 앞서 사례연구대상 국가들이 정책 타이틀과 기간 등 행정적 사항등 정책을 나열한데 반해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런 방식의 정책공유식의 포럼에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기법, 결과 자료를 자세히 보여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음.
 - 영세농 구조조정이 사회보장대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농업이 복지와 관련되어 정책설계가 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닌 것을 느낌.
- 개도국 농업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의 사례가 발표되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농업개발에 상당한 혁신을 이루었으며 세계시장 점유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관련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낌. 반면 중국은 항상 농업대국이라고 인식해왔던 탓에 중국 대표단이 농업에 대해 취약하다고 발언하는 점이 놀라웠음.

표4. 주요 의제 및 일정

11월 20일(목)	
제 1 세션 영세 농업의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농 구조조정 : 이슈 및 정책 대응 - 사례연구 1: 칠레 - 사례연구 2: 멕시코 - 사례연구 3: 한국 - 토의 및 정리
제 2 세션 개도국 농업정책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농업정책의 후생효과 - 개도국 농업의 구조적 특징 - 토의 및 정리
11월 21일(금)	
제 3 세션 개도국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경제에서 농업시장발전과 정책대응 - 농업정책 전개: 중국, 인도 - 농업정책 전개: 러시아, 우크라이나 - 농업정책 전개: 브라질, 칠레, 남아공 - 논의 정리

세션 I : 중소농의 구조조정

- 농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로, 특히 한국의 경우 농업의 GDP 비중 및 농업고용이 비중 등이 급감
- 경쟁력이 약한 중소농에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크며, 농업 구조조정을 전체 경제개발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농업정책을 전체 경제정책 안에서 전략적 틀에 맞추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
- OECD 국가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격지지 정책 또한 대규모 생산자의 수익의 기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흥경제권의 경우 정책목적 및 정책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분야에 잠재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가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비농업소득 기회확대 및 사회적 정책 실행으로 보완

세션 II : 개발도상국의 농업정책

1)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역과 정책효과 모델링'

- 개발도상국이 정책대안의 효과를 판단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적용 가능한 모델을 검토함. 또한 2009-10년 관련연구 소개를 소개함.
- PEM : OECD 국가에 있어 농가 지원정책의 이전 효율성(transfer efficiency) 및 복지측면의 효과 등을 측정하는 시장모델임. 주요 전제는 생산과 요소시장이 연결되어 있고 정책이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그 소득에 대한 농가의 지배력에 의해 분배효과가 결정됨.
- PEM 모델의 수정 :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편적인 하나의 모델보다는 각국의 특수성 및 시장 불완전성을 반영한 유연한 모델설정이 필요 DREM(Disaggregated Rural Economy-wide model)은 약 15개 국가 모델을 변수화하여 개입에 대한 반응

측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한 것임.

2) ‘자산, 투입재, 시장에의 접근에 있어 농가의 이질성 - 국가간 비교’ 발표

- RIGA(Rural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project : 발표내용의 기술적 분석 수단, FAO, 월드뱅크, 미국대학과의 공동 작업임. 농가의 주요자산(토지, 인프라 등), input 시장, 상품 시장에의 접근성 및 높은 식품 가격 등이 빈곤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 주요자산, input 시장, 상품시장에의 접근 정도에 따른 국가간 이질성과 성과변수(농업에서의 성공 등)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향후 이러한 data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

세션Ⅲ: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의 농업정책 : 점검 및 평가

- 식품 등 생필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함. 이는 수요·공급의 복합요인,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원인임.
- 정부의 정책대응 세분화 : ①교역측면(관세감축, 수량할당, 세금) ②생산자측면(최소가격 및 투입재에 대한 지원) ③소비자측면(가격통제, 직접이전지원)
- 정책평가 및 권고사항 : 정책전달의 지속성 및 투명성 제고, 무역장벽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생산촉진을 위한 투입재 지원에 신중, 보험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긍정적(전액 보상, 민간영역으로 이전될 경우) 등